

◆ 연합 한인 형제회 웹사이트 <http://www.koreansfo.org> ◆



# 평화의 도구

(제 147 호)

05년 11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올리아),sfo (714)572-1828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박 영환(빅토리노),sfo (714)638-194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올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91@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또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koreansfo.org

## 형제회 소식

### ■ 12월 월례회

오는 12월 정기 월례회는 4째 일요일이 성탄절 (12월 25일) 인 관계로 3째 일요일인 12월 18 일(일)로 변경합니다. 착오없이기 바랍니다.

### ■ 신부님 환영합니다.

오늘 피정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해 주신 유수일 (사베리오)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가톨릭 워커 봉사

오는 12월4(일) 에는 한국음식 불고기를 봉사할 예정입니다. 함께 봉사하실 분을 환영합니다.

### ■ 회비 정산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회계 년말 정산을 위하여 그동안 밀린 월 회비, 서약자 년회비, 기타 기부금 등을 12월 월례회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10월 23일(일)  
 임민웅(베드로)

### ■ 기부금

오늘 11/27일 피정의 점심제공을 위하여 익명으로 \$1,000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12월 프란치스코 피정 안내

토랜스 성 프란치스코 본당 성모기사회와 풀베 형제회에서는 프란치스코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피정을 합니다. 많은 참석 바라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 간: 12월 3일(토), 9:00 am-4:00 pm

-장 소: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2040 W. Artesia Blvd, Torrance 90504

-주 제: 봉 헌

-회 비: \$5.00, 점심 제공

-문 의: (310) 380-4647

### ■ 지구 형제회 회장단 연례 모임

-대 상: 지구형제회 모든 회장단원

-연 제: 06년 1/13일 4:00 pm-15일 12:00 pm

-장 소: San Fernando Retreat House

【프란치스칸 교리】

## 프란치스칸은...

Catch me a Rainbow too 중에서



프란치스칸은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하게 자선을 행하는 형제  
회도 아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애  
써 노력하며 서로 도와주려고  
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하며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와 확고한 영성을 가지고 있  
는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변화와 성장을  
당연하게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노  
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받는 격려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영의 친교가 있으며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일치된 마음으로 생각하여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오." (필립비 2,1-2)

\*\*\*\*\*

## 칠락 묵주 기도

(The Franciscan crown)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7가지 기쁨을 찬미하  
기 위하여 1422년에 시작된 7단짜리 묵주기도  
(rosary). 이 묵주기도는 또한 '천사적 로사리오'  
(seraphic rosary)라고 불리기도 한다.

프란치스코적 영성 안에서 성모께 대한 신심  
은 아주 열성적이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영성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프란치스코적 영성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이  
기에 그에 따라야 영성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주의와 성모 마리아의 관계는 떨  
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도 강생 구속사업을 시작하기 위  
하여 마리아의 대답을 기다리셨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  
서" (루가 1,38)라는 대답을 기다리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하고자 할 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필  
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말이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성모님께 대한 프란치스코적 영성은 자연  
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주의적 맛을 보존하게 되  
는 것이다.

성모님께 대한 우리 수도회의 기도는 대개가  
찬미하는 기도이다. 이 찬미의 기도 중에서도  
성모의 칠락은 가장 아름답고 전통적인 기도이  
다.

성모의 고통에 대한 신심보다 성모의 기쁨은  
더 깊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성모 마리아께서 느꼈던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공경은 우리 프란치스코 수  
도회의 칠락 로사리오 이전의 오랜 역사를 지니  
고 있다. 그렇지만 이 칠락 로사리오야말로 완  
전한 프란치스코적 기도이다.

### ■ 칠락묵주 기도의 기원

이 칠락의 로사리오에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  
정 마리아께서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보배  
로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마리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칠락 로사리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 프란치스코 잔 꽃송이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  
슷하다. 이에 관한 사건의 이야기는 유명한 우리  
수도회의 역사책에서 볼수 있다.

루카 와딩 (Luca Wadding) 신부가 쓴 프란치스

코 수도회의 연대기 (Annales Ordins minorum) 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신부님은 증명될 만한 고전자료와 전통을 철저히 검사한 후 이야기를 기술했기 때문에 이 칠락 로사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성을 지닌 믿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도는 정말로 프란치스코적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성모 마리아 기쁨의 작은 성무일도라고도 불린다. 우리들도 이 칠락 로사리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해야 하겠다.

\*\*\*\*\*

【프란치스코 러시아 선교 1】

## 너희들은 나의 삶과 생명을 나눈 동반자

김 용철(도미니꼬) 신부, OFM

수도원의 작은 어항에는 꾸빼 7마리가 살고 있다. 여러번 식구들이 새로 태어나고 죽으면서 벌써 3년 동안 이 물고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 35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한국에 갔다 오니 10마리? 남아 있다.(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물고기도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고 잘 헤엄치고 다닌다. 매일 아침 기도를 마치면 가장 먼저 먹이를 주고,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어느 고기가 아프지 않는가 주의 깊게 살핀다. 사실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매일 보고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과 일주일에 한번 보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내가 수도원에 있을 때는 늘 새끼 고기가 태어나고 잘 자란다. 사실 태어나고 어미들과 떼어 놓지 않으면 전부 잡혀 먹기에, 언제 새끼를 낳는 날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꾸빼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다) 그러나 관심을 가진 않는 날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새끼가 낳아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어가는 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꾸빼이것은 물고기 만이 아니다. 수도원 기도방에는 작은 꽃들이 첫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있다.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잡초나 시들은 잎들을 따 주고 가꾸면, 꽃은 피고 잎들은 파릇파릇 생기가 난다. 그러나 이들만 눈에서 멀어지면, 벌써 축 쳐진 잎과 줄기에서, '사랑을 목말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물고기가 힘차게 움직이고, 꽃들이 피고 활짝 웃을 때, 나 역시 그들로 부터 삶의 생명력을 얻고 하루의 생활이 즐겁게 시작됨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삶과 생명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 버렸다. 통교라고 할까?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일까? 그래서 만민의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비단 동식물만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나 식구들에게 나누는 웃음과 인사는 체바퀴 도는 뜻한 삶을 역동성 있게 바꿀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오늘도 사랑과 관심 어린 말 한마디를 나누는 그런 동반자이고 싶다.

10월 24일 러시아에서

【프란치스코 러시아 선교 2】

## 첫눈이 오는 날에는..

첫 눈이 내린다. 온통 세상을 순식간에 하얀 대지로 만들어 버리는 눈. 그러나 그런 첫 눈도 세찬 비바람과 함께 불고 있으니, 을씨년스럽다.

누구나 첫 눈을 기다려지나 보다. 특히 어린 시절 손에 봉숭아 물들이고, 첫 눈 올때까지 남아 있으면, 첫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순수한 추억들이 새삼 떠오른다.

‘첫 눈 오는 날, 그곳에서 만나요..’ 라고 약속했던 연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직 러시아에는 이런 풍습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첫 눈이 오는 아침에 ‘기쁨을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았다.

러시아 말로, ‘스 프라지니캄’ 축일(기념)을 축하할 때 쓰는 말이다. 첫 눈이 올 때,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한다. 하나의 축제의 날이기 때문이란단다.

그렇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첫 눈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것 같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오늘, 비록 첫 눈이 세찬 비바람으로 옷깃을 더욱 여미는 날이었지만, 첫눈으로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 첫 눈이 무척 반갑다.

05년 10월 21일 러시아에서

\*\*\*\*\*

【목 상】

## 인간의 고민

사람은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  
둘째는 사람에 대한 일,  
셋째는 자신에 대한 것의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케는 그의  
실존 철학에서 말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재산을 모으고 돈을 벌려한다.  
그것에 성공한다면 다음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  
만약 그것도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고민을 느낀다.

첫째의 고민을 푸는 자는 가끔 있다.  
둘째의 고민을 푸는 자는 더욱 드물게 있다.  
그러나  
셋째의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믿음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소망만이  
이것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영 혼

인간에게는 2가지의 인간성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앞을 못 보는 육체적인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눈을 뜬 영적인 인간이다.

전자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며 종족번식 등의 일을 시계태엽처럼 하는 데 비해,

후자는 오직 눈 못 보는 인간이 하는 일을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일만 한다.

이 영적이 인간을 우리는 영혼(靈魂)이라고 부른다.

\*\*\*\*\*

【유 머】

## 신사와 거지

어느날 길가에서 호화로운 옷차림의 신사에게 다가선 거지는 먹을 것을 사야겠다면서 1돈을 구걸했다

\*신사: 잔돈 가진 것이 없네. 하지만 술을 대접하겠네.

\*거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술을 못합니다.

\*신사: 그럼 내가 담배를 사주지

\*거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신사: 좋아. 그럼 경마장엘 가세. 내가 자네 말에 돈을 걸어줄 테니.

\*거지: 아닙니다. 도박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신사는 거지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신사: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세. 남자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누라한테 보여 주고 싶네 !!!



12월 월례회는 12월 18일(일)로 변경합니다.